

# 유엔 에이즈 특별총회에 다녀와서

**유미혜** | 구세군 사관  
미국 뉴욕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구세군 한인 영문 담임목회  
구세군 에이즈예방사업단 담당관

200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유엔 에이즈 특별총회(UN HIV/AIDS)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시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 4인과 이정옥 부장(구세군 여성사업총재) 및 유미혜 참령(구세군 에이즈 예방사업단 담당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고문단 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UN 본회의장 출입증을 만드는 것을 일정의 시작으로 25일 9시부터 시작된 본 총회에 참석하였다.

약 170개국에서 정상급 대표 및 장관급 대표들과 더불어 각국 대표단들은 이른 아침부터 본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20세기말 인류 최대의 질병으로 지구촌을 위협하고있는 AIDS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또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함께 교류하면서 전세계가 함께 나서서 에이즈 퇴치 및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연대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북적대고 있었다.

본 특별총회를 위해 선출된 의장이 개최를 선언하고 곧이어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an)의 기조 연설이 있던 다음, 바로 이어 각국 대표단들이 자국내 에이즈 현황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사업에 대한 소개 및 규범 UN에서 채택될 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3일동안 계속된 국가별 발표내용은 대체적으로 선진 개발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의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자국내 에이즈 감염의 심각성의 차이에 따라 세계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도 다름을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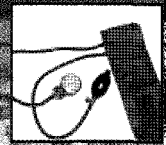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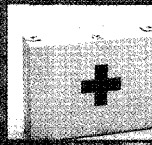
었다.

예를 들면 이미 성인인구 1/5이상이 감염되어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동남아시아 및 카리비안 지역의 국가들은 에이즈 예방 사업 및 감염인의 치료에 대하여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 강조하여 발표하는데 반해, 캐나다 및 미국, 그리고 서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감염인의 인권,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집단, 즉 여성과 아동, 그리고 기타 집단의 인권 및 사회적 수용에 관하여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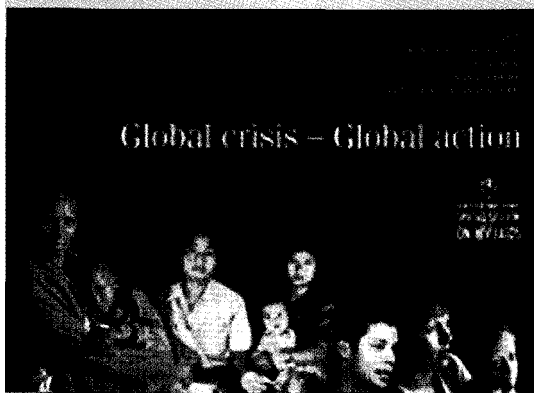
총회의 2일째에 한국수석대표인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의 입장과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서로 긴밀한 연대를 가지는 가운데 활발하게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국별 발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선언문체택을 위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는 원탁회의시간이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다룬 쟁점은 바로 다음과 같다.

그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HIV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 예방을 꾀하자는 서구사회의 선진 개발국들의 의견이 채택되자 취약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회교국가들이 이를 반발하고 나섬으로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결국 아랍권 및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총회에서 협의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점이다. 이로 인해 2시간 여 이상의 전체적인 토론이 이루어 졌다.



## Global crisis - Global action



유엔 에이즈 특별총회 안내포스터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에이즈의 심각성이나 이의 예방, 또는 감염인 치료를 위해 공동으로 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 및 전통의 차이로 야기된 국가간 견해

차이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더 먼저 앞서는 총회의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쓸쓸함도 느꼈던 부분이었다. 결국 캐나다를 위시한 서구 국가들의 제안이 취약집단을 규명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 선에서 서로 절충함으로서 선언문의 내용으로 채택되어 지게 되었다.

각국 대표단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었던 유엔 본회의장에서 총회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의 다른 건물에서는 각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시민단체로부터 온 대표들이 정보교환 및 각종 에이즈 관련 사업에 대해 여러 곳에서 주제별로 패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패널장소에는 국제본영내에서 보건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안 캠벨박사(Dr. Ian Campbell) 및 국제본영 에이즈 사업팀 소속인 구세군인들이 2명 참여하고 있었으며 또한 UN내에서 구세군 대표로 일하고 있는 프레드 룩 부장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3일간의 유엔 에이즈 특별총회는 참가 국가들의 발표가 완료된 후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 대응에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또한 특이할 만한 부분은 특별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한국, 중국, 몽골의 대표단들은 잠시 협의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사안은 앞으로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

아 지역 국가간에 에이즈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업의 연대 등을 다룬 것들이었으며 앞으로 민간 단체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특별총회가 끝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귀국할 생각을 하며 뉴욕의 거리를 잠시 걸으면서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은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각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 지구촌에서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야겠다는 점, 그리고 HIV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집단, 특히 성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 그리고 청소년 및 아동집단,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들이 에이즈라는 질병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며 향후 한국 내에서 에이즈 관련 사업의 새로운 구상을 해 보았다.